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마와 같이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는 북과 남이 올해에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아줄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 도 없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

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지난 기간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가지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여러차례에 걸쳐는 장령군군사회담들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일체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천에 구현하였으며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벌어지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10.4선언에서도 북과 남은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이

집권한 때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신뢰분위기가 사라지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만이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북과 남사이에는 침예한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어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우기 지금 미국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화해와 협력을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여달릴 기도로써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처럼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견어치워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군사적긴장완화는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도 70여년,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

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미국은 우리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프 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북침합동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불피코 열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을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새해는 북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을 립벽경기대회가 열리

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 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 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또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견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

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광기를 꺾고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검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끌라가며 최고 세계도처에 전쟁의 불구름을 식은죽먹듯 퍼워올리곤 하는 미국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주권국가인 수리아의 령토

에 수많은 미싸일들을 마구 퍼붓는 야만행위를 눈섭 하나 까딱 안하고 감행하였다.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제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제재와 위협의 대상으로 삼아온것이 공화국이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전횡과 침략전쟁책동을 막자면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고 조선민족전체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여도 우리 민족이 힘을 지녀야 한다. 그 힘이 바로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무력이다.

공화국은 지난해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함으로써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결코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자위의 강위력한 핵무력은 앞으로도 공화국의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게 될것이다.

리어금

《북과 남이 대화하는것은 환영할 일이다》

— 남조선 각계의 반향 —

새해 2018년을 맞으며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천명한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립장들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단히 환영할만 한 제안이고 《정부》도 상응하는 립장을 취해야 한다》,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 련석회의 등 을 통해 새로운 교류와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해에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앞장설것을 다짐하였다.

《련합뉴스》, 《한겨

레》, 《통일뉴스》, 《자유시보》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2018년 신년사 명한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립장들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고 기대를 표시하였다.

남조선강원도의 지사는 《신년사의 내용과 표의 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다》, 《크게 환영한다》, 《북남단일팀을 구성할수 도 있다》고 하면서 적극 호응해나섰다.

남조선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과격적인 제안은 교착국면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

어올릴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북의 제안이 평가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 정치권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숭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과격적이

고 유화적인 조치를 담고있다고 하면서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에서 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들에 는 《새해 반가운 소식이다》, 《평창겨울철올림픽이 남북평화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조선반도평화의 첫걸음이기를 바랍니다》, 《북과 남이 대화하는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 대화 그리고 민족공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 《북동도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형제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올해는 남북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환영!》, 《평화 대찬성! 전쟁 싫어》, 《조선반도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 필요하다》, 《평화로운 조선반도! 자주통일! 사랑한다》 등 북남 화해와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